2019. 2. 11

▲ 철강
Analyst **민사영**
02. 6098-6652
sayeong.min@meritz.co.kr

Overweight

철강

美 상무부의 송유관 반덤핑관세, 수출에 영향 大

- ✓ 美 상무부,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59% 반덤핑 관세 부과
- ✓ 대미 송유관 수출에는 상당한 영향 전망
- ✓ 업체별 영향은 상이할 것: 최대 피해 넥스틸, 최소 피해 세아제강
- ✓ 5월 유정용 강관에 대한 최종 판정 확인
- ✓ 송유관의 최종 판정은 7~8월경 발표

美 상무부,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59% 반덤핑 관세 부과

지난 10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관세 연례재심(2016~2017년)의 예비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넥스틸 59.09%, 세아제강 26.47%, 현대제철 등 기타업체 41.53%의 관세율이 부과되었다. 지난 연례재심 관세율은 세아제강 14.39%, 현대제철 18.77%, 넥스틸 등 기타업체 16.58% 였다.

대미 송유관 수출에는 상당한 영향 전망

예비판정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적용된다면 한국의 대미 송유관 수출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수출 쿼터는 추가관세 25%를 적용 받는 대신 적용되는 것이다. 즉, 다른 말로 추가관세 25% 수준에서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훼손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 예비판정에서 넥스틸과 현대제철 등은 추가관세 이상의 관세율 인상이 적용된다. 사실상 이들 기업의 송유관 수출은 불가능한 셈이다.

업체별 영향은 상이할 것

이번 연례재심 예비판정이 최종판정으로 이어질 경우 최대 피해자는 넥스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넥스틸은 유정용강관과 송유관 모두 고율 관세를 부과받아 사실상 대미 수출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었다. 현대제철의 경우도 송유관의 수출이 사실상 막혔으나 전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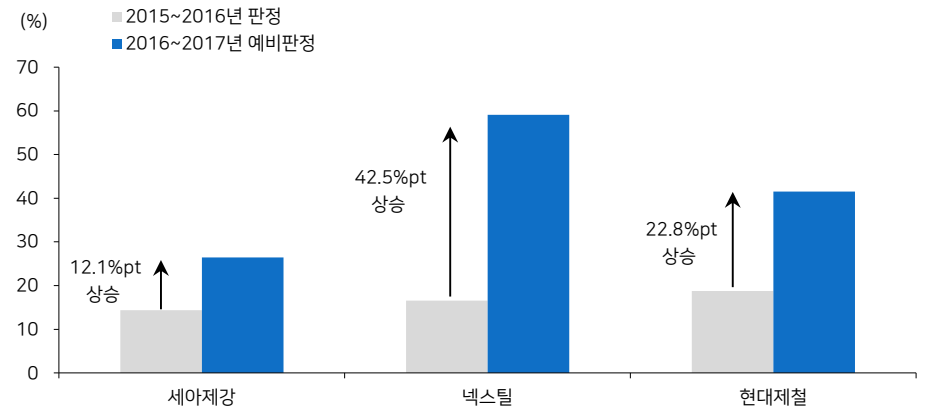
세아제강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송유관의 관세율이 12% 가량 상승하면서 마진 악화는 피할 수 없겠으나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해진 경쟁사의 쿼터를 양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수출 물량 확대에 따른 가동률 상승으로 고정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 부정적인 효과를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다.

MERITZ
메리츠종금증권

美 상무부,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59% 반덤핑 관세 부과

지난 10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관세 연례재심(2016~2017년)의 예비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넥스틸 59.09%, 세아제강 26.47%, 현대제철 등 기타업체 41.53%의 관세율이 부과되었다. 지난 연례재심 관세율은 세아제강 14.39%, 현대제철 18.77%, 넥스틸 등 기타업체 16.58% 였다.

그림1 미 상무부의 송유관 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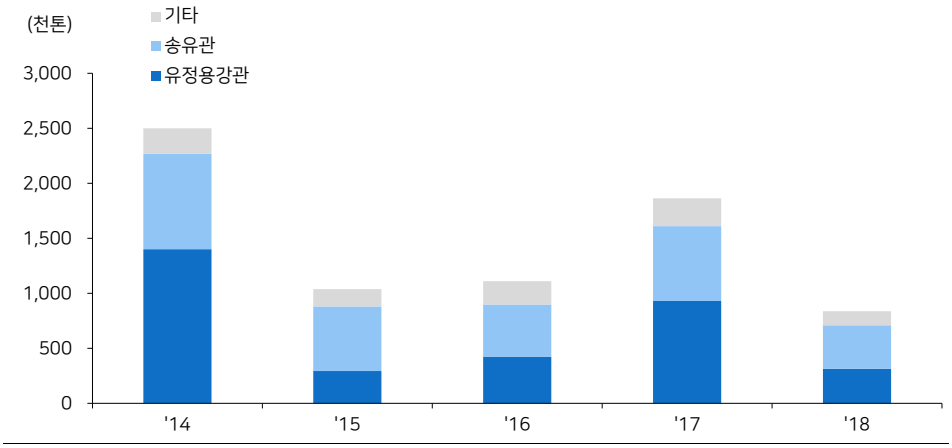
자료: 언론,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대미 송유관 수출에는 상당한 영향 전망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통강 강관수출은 83만 8천톤이며, 이중 유정용 강관은 31만 5천톤, 송유관은 39만 5천톤이 수출되었다. 이는 재작년 보통강 강관수출 186만 5천톤, 유정용강관 93만 1천톤, 송유관 68만톤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출 쿼터 적용의 영향이 컸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강관 대미 수출쿼터는 102만 6천톤 수준이다. 이 중 47만 6천톤 가량이 유정용 강관에 할당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이 송유관 및 기타 강관에 할당되어 있다.

예비판정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적용된다면 한국의 대미 송유관 수출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수출 쿼터는 추가관세 25%를 적용 받는 대신 적용되는 것이다. 즉, 다른 말로 추가관세 25% 수준에서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훼손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 예비판정에서 넥스틸과 현대제철 등은 추가관세 이상의 관세율 인상이 적용된다. 사실상 이들 기업의 송유관 수출은 불가능한 셈이다.

그림2 **한국의 대미 강관 수출 추이**



주: 보통강 강관 기준
자료: 한국철강협회,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업체별 영향은 상이할 것

이번 연례재심 예비판정이 최종판정으로 이어질 경우 최대 피해자는 넥스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넥스틸은 이미 유정용 강관에서도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 받았으며, 이번 송유관의 관세율도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미 수출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었다.

현대제철의 경우도 송유관의 수출이 사실상 막혀버리게 되었으나 수출 규모가 4만 8천톤 수준으로 전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세아제강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송유관의 관세율이 12% 가량 상승하면서 마진 악화는 피할 수 없겠으나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해진 경쟁사의 쿼터를 양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수출 물량 확대에 따른 가동률 상승으로 고정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 부정적인 효과를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월 유정용 강관에 대한 최종 판정 확인

지난 1월 CIT는 관세율 인상의 근거였던 PMS의 설명력을 지적하며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관세 재산정을 명령했음에도 이번에 송유관 관세율이 크게 인상된 점은 다소 의외다. 유정용 강관에 대한 최종 판정은 4~5월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결과에 따라 7~8월경 발표될 송유관의 최종 판정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 년 2 월 11 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 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 년 2 월 11 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 년 2 월 11 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민사영)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2016 년 11 월 7 일부터 기준 변경 시행)

기업	향후 12 개월간 추천기준일 직전 1 개월간 평균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	
추천기준일 직전 1 개월간 종가대비 4 등급	Buy	추천기준일 직전 1 개월간 평균종가대비 +20% 이상
	Trading Buy	추천기준일 직전 1 개월간 평균종가대비 +5% 이상 ~ +20% 미만
	Hold	추천기준일 직전 1 개월간 평균종가대비 -20% 이상 ~ +5% 미만
	Sell	추천기준일 직전 1 개월간 평균종가대비 -20% 미만
산업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 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	
추천기준일 시장지수대비 3 등급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투자의견 비율

투자의견	비율
매수	95.5%
중립	4.5%
매도	0.0%

2018 년 12 월 31 일 기준으로
최근 1 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